한형조 무문관 탐방 ㊿⑧

58

세존의 채찍 ③

“오온 통괄하는 주체는 없다”

모든 현상은 세계속에서 일어난 것일 뿐

“내 발에 무좀이 있다”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표현법이 아니다.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도 근본적 사실, 즉 다르마(法)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르마에는 ‘발’도 없고, ‘무좀’도 없고, ‘있다’도 없고, 더구나 ‘나’는 없다. 그럼 무엇이 있는가.

오온(五蘊)만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을 가리킨다. 오온은 보다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사실로서의 다르마를 대표한다. 아비다르마는 이들을 통해 세계의 모습과 인간의 경험을 설명하는 독특한 방식을 창안했다. 이에 따르면 앞의 사실-경험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1) 물질(色): 여기 있는 이것은 형체, 즉 ‘물질’로서의 발이다.

2) 느낌(受): 가렵고 스멀거리는 ‘느낌’이 있다.

3) 지각(想): 무좀 있는 발을 보고 만지는, 또 괴로움을 아는 ‘지각’이 있다.

4) 의지(行): 무좀은 ‘의지적 반응’을 수반한다. 고통에 대한 불만과 조바심, 그리고 치유에 대한 바람 등.

5) 의식(識): 이 모든 과정을 자각하는 ‘의식’이 있다.

아비다르마는 모든 사실과 경험을 이 틀에 의해 해체하고 정돈했다. 궁극적 사실로서의 다르마들을 정립하고, 그 다르마들 사이의 관계를 분류 결합하여 목록을 작성했다. 그래서일 것이다. 아비다르마논서들에는 별다른 문학적 향취나 수사를 찾을 수 없다. 흡사 회계보고서나 물리학의 공식을 보는 듯이 지극히 건조하고 딱딱하다.

대체 어째서 이런 재미없는(?) 작업을 그토록 힘들여 하고 있는가. 그 의도는 하나로 귀결된다. 세계를 자아화하는 인간의 뿌리깊은 습성을 치유하고 뿌리뽑자는 것! 아비다르마는 ‘무아(無我)’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적 훈련이다. 앞의 분석을 자세히 보면, 거기서 어느새 ‘나’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무좀’과 그로 인한 ‘고통’의 느낌,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겠다는 ‘열망’은 ‘나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오온(五蘊)은 말 그대로 ‘다섯 무더기’를 가리킨다. 그것은 흡사 장작 더미처럼 쌓여 있을 뿐, 이들을 통괄하는 주체, 혹은 중심은 없다.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은 다르마들일 뿐, 이를 통괄하는 자아 혹은 인격이란 실재하지 않는다.

나가세나가 그래서 말했다. “왕이시여, 수레의 자성(自性)은 어디 있습니까. 굴대입니까. 바퀴입니까. 수레란 흩어진 재료들이 모인(蘊) 것일 뿐, 그 통합적 실체는 없습니다.”

아비다르마는 말한다. 모든 현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그런데 무시이래의 무명(無明)의 오랜 습성때문에 이를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우를 저지르고 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가 바로 이 동일시(identification)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 무지(無明)을 타파하기 위해 아비다르마는 지리하고 힘든 고육(苦肉)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비다르마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심리학 가운데 하나이다. 지금도 마음먹고 이 체계에 따라 명상해 나간다면 자아의 점착성을 떨치고 고요와 평화에 이르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림 · 문병성

불교사적으로 보아도 이 ‘해체적’ 분석의 의미는 심대하다. 다르마 분석은 초기불교의 주춧돌이었다. 상좌부(上座部)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 말하는 ‘지혜’란 바로 이 ‘다르마의 체계적 분석과 그 조직적 명상’을 의미했다!

대승은 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독자적 성립을 기약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려 한다. 사찰에서 늘 독송되는 대승경전의 심장인 ‘반야심경’을 기억할 것이다. 그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이 깊은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蜜多)를 행하실제, 오온(五蘊)이 모두 공(空)함을 보시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셨다. 사리자(舍利子)여, 색(色)은 공(空)과 다르지 않고 공(空)은 색(色)과 다르지 않다. 색(色)은 공(空)이고 공(空) 또한 색(色)이다.”

우선 몇 가지가 눈에 띈다. 주인공부터 소승의 ‘아라한’에서 대승의 이상형인 ‘보살’로 바뀌었다. 그 보살은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여기서 우리는 대승이 오온을 궁극적 실재(다르마)로 규정하는 아비다르마에 대한 교리적 혁신을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사리불이 교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리불(Sariputra 舍利佛)이 누군가. 바로 그 다르마의 조직적 분석과 명상을 지혜로 삼고 초기불교를 체계화한 사람이 아니던가. 대승은 사리불을 앞에 꿇어앉힘으로써 소승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권위와 정당성을 인정받는 이중적 효과를 노렸다.

이런 구성의 의미와 맥락을 놓치면 우리는 ‘반야심경’의 소식을 그 충분한 깊이와 넓이에서 읽을 수 없게 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수행은 겉치레 아닌 노력”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8

정정진①

정정진은 정명, 정어 등 앞서 설명한 불교의 실천 수행종목들보다 내적인 명상수행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수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도의 유명한 수행자였던 라마나 마하리시(Ramana Maharshi)는 “깨달음은 인간의 타고난 권리가 아니다. 오직 합당한 노력만이 성공적인 수행을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파이의 재료를 구입하러 슈퍼마켓에 갔다. 그는 한 손에는 파이요리의 재료 목록을 쓴 메모장을 쥐었고 다른 손으로는 구입한 재료를 안았다. 그가 슈퍼마켓을 나섰을 때 그는 파이 재료들을 한아름 안고서 뒤뚱거리며 겨우 걸을 수 있었다. 그때 세차게 부는 바람에 그는 메모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잡으려는 순간 파이재료들이 땅으로 쏟아졌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간의 평범한 생각을 뒤집어 볼 것을 종용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선사의 어록이 적힌 책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라사에서 수행했던 달라이 라마, 수 마일을 걸어서 히말라야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의 구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가장 좋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달라이 라마의 수행과 히말라야를 걸었던 구도자들의 노력과 우리가 매일 법회에 참석하고 책을 읽는 노력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수행은 보이는 겉치레가 아니며 바로 노력 그 자체이다.

> “주변 현실을 바로보자
> 사소한 곳에서 불법을 보면
>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우리의 수행 중심에는 당연히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이 노력은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선 두가지는 ‘버림’과 ‘유지’이다. 이것들은 수행에 있어서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버림’이란 우리가 세간에서 알게되는 집착과 미움 · 분노 등의 감정들을 버리는 것을 일컫는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담배를 끊기 위해 수십 수백번을 시도하지만 번번히 실패한다.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두가지는 ‘계발’과 ‘기르기’이다. 이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당신의 주변을 사랑하고 유정물로서의 습관과 집착을 없애고 세간의 쓰레기에서 우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한 선사에게 “가르침의 본질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좋아, 모든 가르침을 너에게 주겠다”며 선사는 땅위에 ‘주목’이라고 썼다.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시겠습니까?” 선사는 ‘주목, 주목’이라고 썼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그러자 선사는 그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며 “주목하는 것만이 우리의 주변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깨달음으로 너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진은 세상을 별천지로 만드는 노력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의 몸 · 마음 · 삶에서 본성을 찾고 보는 것이다. 바로 사소한 곳에서 불법을 보는 것이다.

왓빠뽕 사원의 초창기에는 전기가 없었고 큰 법당이나 식당도 없었다. 이때 아잔차 스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절집에서 살아가노라면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일을 나누어 맡게 된다. 막사와 목욕실을 치우는 일은 여간 중요하지 않다. 법당을 청결하게 거두고 나이 많은 비구의 발우를 씻어주고 막사와 목욕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등 간단한 일도 중요하다. 우리 몸을 비롯해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것으로 보되 역시 깨끗하게 간수해야 한다. 이것들은 하잘것 없거나 천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정성들여 해야할 일로 알아야 한다. 하나하나의 일들을 전심전력 마음챙겨 이행하는 것은 모두가 수행의 표현이고 법의 표현이다.”

바른노력 즉 정정진은 우리 주변을 주목하는 데서 시작하고 세간에 주어진 법을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⑯⑦

불교와 수학

62

집단

김 용 운

필자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왕국’을 가장 좋아한다. 미국의 대평원을 질주하는 들소, 또는 아프리카 대륙의 초원을 전속력으로 이동하는 막대한 들짐승의 무리. 이들에게는 인간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질서있는 행동이 보인다. 이런 집단적인 행동에 관해서는 만물의 영장이라 뽐내는 인간이 오히려 서툴 때가 많다. 가끔 운동경기장이나 명절 때 기차역에서 표를 구하려는 군중이 일시에 모일 때가 있다. 그런 경우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서로 짓밟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대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집단으로 밀집이동하는 들짐승들이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서로 부딪치고 짓밟는 일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짐승떼의 이와같은 신기한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그들 동물종사회의 원형에 내재되어 있다. 생물학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진화로 일컬어지는데 그것이 종(種)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이 과정, 다시 말해서 학습 · 적응 · 진화를 못하는 종은 전멸한다. 신비스럽기조차 한 그들의 사회적 행동 속에 불심을 엿본다. 집단은 단순한 개(個)의 모임이 아니라 항상 그들 종을 유지보존하는 지혜가 자기조직화 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무리는 이미 종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복잡성의 과학은 집단적 행동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한다. 어느 과학자는 까마귀떼의 행동을 관찰했다. 이들 무리가 나는 모양은 수시로 방향을 바꾸면서 모였다가 갑자기 흩어지는 등의 종잡을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이와같이 행동함으로써 종의 유지보존이 가능하다. 새들의 저마다의 행동은 간단하며 다음 세가지로 분석되었다.

> 들소나 새떼 질서있는 행동은
> 진화된 종족 보존의 지혜
> 복잡한 인간사회 ‘불심’ 계발해야

(1) 옆에서 빠르게 날아가는 새의 방향에 따라서 방향과 속도를 맞추어 간다.

(2) 많은 무리가 있는 쪽으로 날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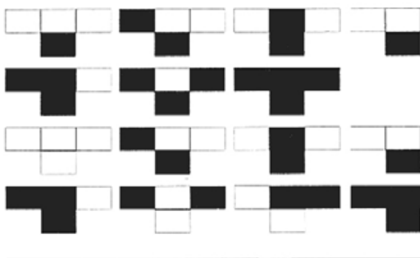
(3) 가까운 곳에 다른 새나 또는 물체가 있으면 그것들과 떨어져서 날아간다.

이것과 관련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라이프 게임’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카오스 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사실은 곧 질주하는 물소떼 낱낱의 행동도 거의 이 정도로 간단히 분석되어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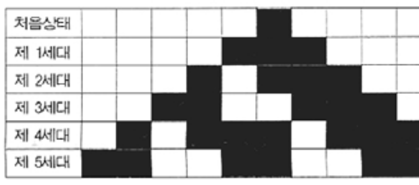
〈그림1〉세포 하나의 상태는 흑, 백이며 현속되는 3개의 세포의 상태가 다음 세포의 상태를 결정한다. 3개의 세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흑, 백 2개이므로 2의 3제곱(2^3)인 8개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흑, 백 2개임으로 가능성은 2^4= 256가지이다.

지금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한다.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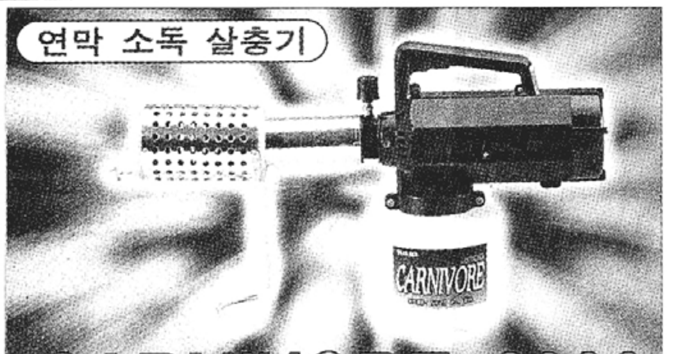
이 규칙은 곧 세포사회의 원형이다. 만일 어떤 경우에도 ‘흑’ 또는 ‘백’으로 정하면 몇 세대가 되어도 전부 흑, 또는 백이 된다. 이것은 완전히 경직, 또는 무질서한 사회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사회가 재미있게 변해가기 위해서는 변화 규칙(원형)이 적절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사회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곳에 부처님의 자비의 빛이 발하는 것은 중생의 불심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그림1〉 처음 상태가 가운데에 하나만 검을 때는 제 1세대에서는 가운데의 3개만 검게 된다.



〈그림2〉 3세대, 4세대 로 전개되면서 고유 모양이 나타난다. 위의 표는 (1) 초기상태의 미묘한 차이가 그 후의 상태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초기 조건의 민감한 반응). (2) 같은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되풀이) (3)일단 전세대가 결정된 후에는 그것이 다음 세대의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피드백)



CARNIVORE 2000

(길이 480mm, 높이 260mm, 폭 130mm, 중량 1.4kg)

카니보 2000 하나면 여름이 편안해진다.

모기 및 모든 해충으로부터 해~방!

⊙ 사찰에 꼭 필요한 상품으로 대만족 확신!
⊙ 방역, 소독 필요시 간편하게 사용가능(어린이도 조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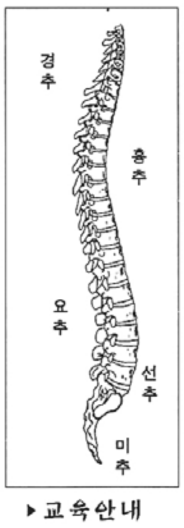
농가, 축사, 어촌, 정원, 야외가든, 지하철, 병원, 화장실, 쓰레기장등 소독이 필요한 모든 곳의 전염성균예방

특별보급가 158,000
※ 3회 분할가능
※ 각종 신용카드 장기분할가능
※ 현금가 : ₩ 130,000

보급처: 한마음 ☎ 051)865-1182 하나하나빨리 ♣크로바서비스:080-007-1182
전국 어느곳이든 배달가능!

지부장모집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특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지부를 운영할 수 있슴
2. 교육수료자는 “수료증, 세계공인 활법사, 5단증, 사범자격증, 스포츠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부여

의료선교사 · 물리치료사
침구사 · 대체의학연구자

▸교육안내
교육기간:5박6일(속성반), 3개월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시작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2. 사진 3×4:10매
3. 주민등본:1통4. 신청서:협회에 비치됨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 특허청등록원 제13235호 】
사회단체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55-6461, 02)859-4156, 011)522-1122

부처님조성 · 석탑 · 석등 · 석비 · 부도 · 불사건축 · 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